

청소년의 성행동 - 미혼모

문 인 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I. 서론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전통 규범의 상실, 성 개방 풍조, 성의 상품화 등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에 대한 정체성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에 입시제도로 인한 과중한 심리적 스트레스 혹은 성의 상품화로 인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미혼모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로 인해 아기를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미혼모가족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와, 임신한 자녀를 출생하여 그 자녀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미혼모가족 대부분의 경우는 생물학적 남편인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유기되어 아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가족상황이 많으며, 가족형태로는 모자가족에 속한다.

미혼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의 수가 1993년 973명에서 2001년 1,58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10대의 미혼모의 비율은 1993년도에 32.4%에서 2000년에 55.1%로 늘어났고 2001년에는 53.3%로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 중 만 15세 이하의 비율도 1999년 6%에 불과했으나 2000년 8.7%로 증가했다. 특히 중·고생 연령인 13-18세 미혼모 가운데 1999 - 2000년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입소당시 총 1,017명중 688명(67.7%)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그 이유는 '임신 전 중퇴(613명)', '임신 후 자퇴(48명)', '임신 후 퇴학(27명)' 등이다. 그러나 복학률은 4명중 1명 꼴인 25%(442명)에 그쳤다.

미혼모들은 대체로 성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생활 또는 폭력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며 임신중절 시기를 놓치거나 비용이 없어서 또는 아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 자신과 아기, 그리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성의 상품화, 국가 미혼모 복지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성경험 연령의 저연령화, AIDS 및 성병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피임에 관한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교육이 청소년의 조기 임신, 학교중단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Smith et al., 2004). 우리나라는 미혼모 저 연령화의 심화, 첫 성경험 연령의 저연령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교육의 실시, 콘돔 등 피임도구 구입의 용이성 등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아직 전혀 마련되지 않는 실정으로 비현실적인 순결교육만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혼모의 실태, 성행태, 경험에 관한 문헌고찰 및 외국의 청소년 대상 피임교육 실태, 미혼모의 실태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의식 확립, 임신예방 및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동 현황

1.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 실태에 관한 학술지 논문 결과 고찰

우리나라의 10대의 임신 및 미혼모 관련 연구는 대체로 심층 면접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임신과정, 미혼모의 경험, 가족관계, 임신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혼모 및 10대의 임신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 개념별로 문헌을 정리한 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미혼모 관련 연구의 형태를 보면 시설 입소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3건, 시설 입소 미혼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3건, 청소년 대상으로 임신, 출산 등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1건이다.

한영란 등(1997)의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들이 겪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조사하였다. 대상 미혼모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시기에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피상적인 학교 성교육을 비판하였으며 청소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임신과정과 반면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갈등을 겪었다. 출산 이후의 가족과 재화합시의 두려움, 사회와 학교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하였다.

박영주 등(1998)은 10대 미혼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임신율은 미혼여성 1000명당 7.2명, 인공유산율은 4.3명, 출산율은 1.2명이었으며 인공유산 경험자 50명 중 횟수가 2회 이상은 53.9% (21명)로 인공유산의 경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더 위험한 것은 인공유산 시기가 38.1%(16명)가 중반기 유산, 인공유산 합병증 경험율은 22%였다. 13-14세의 조기10대에서 임신, 출산, 인공유산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높고 부모가 별세, 별거, 이혼한 가정의 10대들이, 하숙이나 자취, 기숙사 등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경우 많았다. 문제는 임신경험 대상자

〈표 1〉 미혼모 및 10대의 임신 관련 문헌 요약

저자 (연도)	연구방법	주요 연구 개념
한영란 등 (1997)	심층면접조사 (6명)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임신과정, 미혼모 경험, 가족관계 등
박영주 등 (1998)	설문조사 (11,433명)	10대 미혼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출산 경험 실태
윤미현 등 (2000)	설문조사 (130명)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친구집단의 성태도, 혼전 성태도, 피임지식, 성학대 경험, 임신횡수 등
김만지 (2001)	설문조사 (136명)	일반적 특성, 성관계 태도, 스트레스 관련 변인
박영희 (2001)	심층면접조사 (5명)	가족관계, 상대남성과의 관계, 임신과 태아에 대한 반응, 부모, 태도변화
천혜정 등 (2002)	심층면접조사 (10명)	임신관련 (임신상황, 임신확인 경위, 느낌, 피임, 성관계에 대한 생각) 미혼부 관련 질문 (아기아빠와의 관계, 현재 상황, 임신인지 여부, 감정) 출산관련 질문, 가족관계 관련 질문 등
강민수 등 (2002)	설문조사 (112명)	미혼모 관련 실태조사 (일반적 특성, 유산경험, 산전진찰횟수, 성상대자 관련변수, 가정환경, 임신지속 사유 등)

중 43.4%가 흡연, 음주, 약물을 성경험과 중복하여 경험으로써 문제행동의 중복현상을 보였다.

우리 나라는 성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로 인하여 미혼모의 사회복귀, 자녀양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하여 10대 미혼모들은 상당한 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다음 <표 2>는 미혼모 및 10대의 임신 관련 문헌에 나타난 미혼모들의 정서변화이다.

〈표 2〉 미혼모 및 10대의 임신 관련 문헌에 나타난 미혼모들의 정서

저자 (연도)	미혼모들의 정서
한영란 등 (1997)	임신과정을 극복하기 어려움 새생명에 대한 애착
박영희 (2001)	상대남성에 대하여 억울함과 분노 초기에 태아, 새생명에 대한 애착을 보이나 임신 후기로 가면서 자립에 관한 두려움으로 태아 포기
천혜정 등 (2002)	상대남성에 대한 실망, 증오심 가족에 대한 원망, 죄책감, 미안함

미혼모들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경험은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경험이지만 그들은 대체로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애착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임신 중, 후기로 갈수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 위기감으로 대부분이 사회복지기관에 위탁, 입양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 무책임함에 대한 실망과 증오심, 가족에 대해서는 죄책감과 미안함, 결손 가정의 경우 원망과 증오가 함께 동반되었다.

10대의 임신 및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성폭력에 대한 대처 등 실질적인 성교육 및 홍보, 상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미혼모들은 임신하지 않은 또래 여자 청소년들보다 진로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 동일 연령 임신 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 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East, 1996, 김만지, 2002에서 재인용). 서울시 부녀복지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들 가운데 반 이상이 출산 후 계획이나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될 준비가 연령적,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경험한 미혼모 들은 보다 특별한 사회적, 교육적 도움과 관리가 필요하나 이러한 미혼모 대상 교육과 관리정책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음의 <표 3>은 문헌에 나타난 미혼모들의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미혼모 및 10대의 임신 관련 문헌에 나타난 미혼모들의 사회적, 교육적 요구

저자 (연도)	사회적, 교육적 요구
한영란 등 (1997)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박영주 등 (1998)	청소년의 성경험에 비하여 지식과 태도가 미비한 상태, 실질적 성교육 프로그램
윤미현 등 (2000)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김만지 (2001)	미혼모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성경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키울수 있는 교육
박영희 (2001)	10대 미혼모의 출산, 부모되기 교육,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천혜정 등 (2002)	적극적인 피임교육, 학교 복귀 프로그램
강민수 등 (2002)	미혼모 대상 산전진찰, 자립과 아이 양육을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

미혼모들은 대부분 학교에서의 피상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성교육을 비판하고 피임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천혜정 등(2002)의 연구

에서 10대 미혼모들은 임신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임 지식 부족, 피임기구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임신을 경험하게 됨을 지적하고 피상적인 학교 성교육을 비판하였다. 또한 10대 미혼모들은 학교복귀 및 자립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천혜정 등(2002)의 연구에서 10대 미혼모들의 가장 큰 열망은 미혼모 시설 퇴소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었으며 한영란 등(1997)의 연구에서도 미혼모들은 가족과의 재화합,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자료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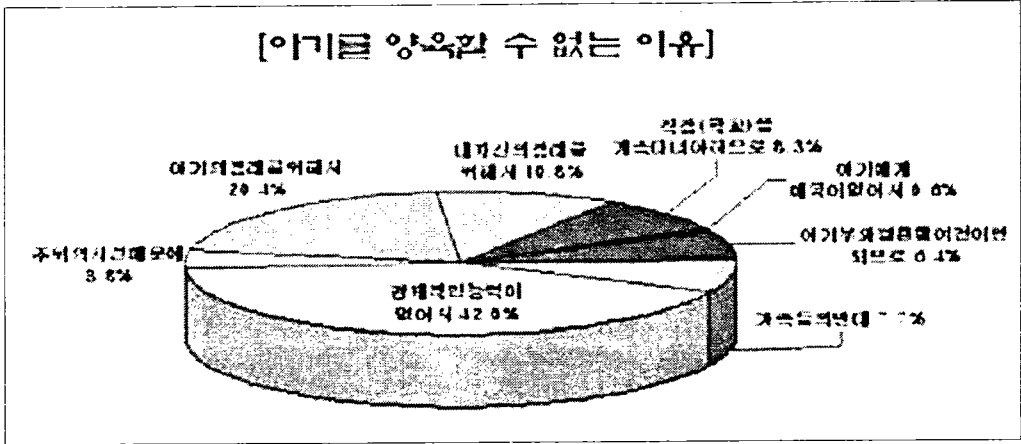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에서는 8월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를 수행하였다.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연령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았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대부분 20대 초반이 많았으며, 15세 이하도 1.7%에 이르렀으며, 미혼모 10명중 8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고, 예상하지 못한 임신·출산 등의 문제는 미혼모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이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교제 중에 원치 않은 임신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피임에 실패해서가 16%로 뒤를 이어 대부분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거나 피임의 실패로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을 하게 된 계기도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 출산을 한 경우도 26.3%에 달했다. 또한 조사대상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미혼모의 재임신, 출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과 미혼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혼부들과의 만남은 친구 소개(37%)나 우연히(16.4%) 등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로 만나 임신 후에는 헤어지는 경우(6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 못한 임신·출산을 미혼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68.3%가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7%가 아이를 양육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43.8%)과 가족들의 이해(24.7%), 아동무료보육(13.7%)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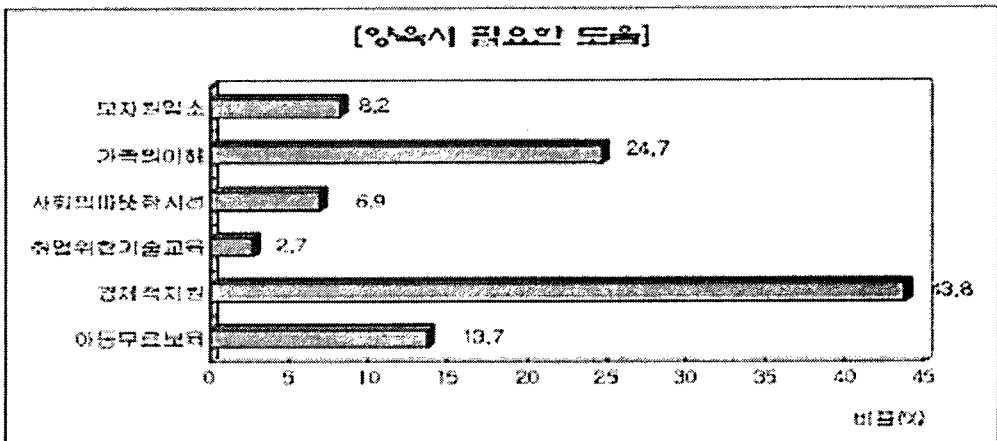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이 남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을 결심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선택 했다는 답도 20.4%에 달했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37%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이유]



미혼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인(28%)과 분만지원(25%)·상담(23.7%) 등이었으며,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은 가족의 이해(48.6%)와 숨기고 싶다(31%)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가족들의 이해와 숨기고 싶다는 복합적이고 상반된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혼모시설의 운영을 개편해 분만과 아이들의 의료지원, 자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 지원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도 사전에 미혼모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임위주의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양육시 필요한 도움]



Ⅲ. 청소년 임신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교육적 해결방안

1. 정규적인 성교육 교과와 시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위 내용과 같이 10대 청소년들은 사회진입의 준비기 또는 출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문제로 인한 일탈의 피해와 후유증이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일탈된 성적 행동, 특히 미혼모와 같은 극심한 성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문제 증가추세는 청소년들의 상담내용 순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30% 이상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에 있으며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상담문제 가운데 성문제 상담이 가장 빈번하게 의뢰되고 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8).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성문화 연구소에서 2000연도에 성교육 요구도 조사 및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 등을 통하여 성교육을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과 함께 체계적 접근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성교육 필요성과 요구도가 높은 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지식을 부모나 학교가 아닌 친구 혹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습득하고 있었다. 음란비디오 및 음란 잡지 등과 같은 외설물과의 접촉도 빈번하여 성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이고 왜곡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음란물 접속률이 높았다. 즉 외설물에 대한 접촉 실태가 높고 이를 통해 성충동의 발현이나 성관계욕구에 대한 호소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피임교육이 아니므로, 미혼모를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 중, 고등학교간의 성교육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별로 신체발육발달 수준에 따라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성교육 내용이 심화되고 학교급간에 연계성을 갖고 교육되어야 하나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간략하고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성에 대한 가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단편적 혹은 단정적으로 되어 있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기 어렵다. 성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성교육 요구도는 매우 높았으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남학생은 68.8%, 여학생의 94.4%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학생은 7.9%밖에 안되며, 여학생의 경우 22.1%였다. 교육을 받은 내용은 임신이 74.24%, 월경이 57.77%, 피임방법이 49.84%, 에이즈가 47.95%, 성병이 32.28%의 순이었고, 성교육시 주로 사용된 매체는 비디오 68.0%, 유인물 33.6% 및 슬라이드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각각 95.0%, 91.4%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학교에서 성교육이 공식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을 남학생의 65.8% 여학생의 69.9%가 원했다. 성교육 실시시기는 전체학생의 51.5%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성문화 연구소(2000)에서는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 학교성교육을 위한 개념적 모형을 성교육 목표부터 성교육내용,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면서 성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학교 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1) 성문화 연구소(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의 목표

● 일반 목표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을 기른다.
-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습득시킨다.
- 건전한 성태도 및 의식, 올바른 성의식, 분별 있는 성윤리를 확립한다.

※ Advocacy를 통한 재원조달은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 사회와 성 관련 산업체, 정부, 교육부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물질적 및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함

2) 성교육 내용 및 방법

- 성교육 시간 수 :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적어도 연간 7시간 이상은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성교육 시기 (언제부터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 처음으로 성경험을 한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5.7세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성교육 내용 및 방법의 설정: 인간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포괄적인 학교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강신념 모형과 사회학습이론과 같은 보건행태관련 이론이나 모델을 적용한 성교육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누가 성교육을 가르쳐야 하는가? :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의 교과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주기적인 연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2. 전담교사 양성

유치원 및 초등학교 성교육은 대학과정의 보육학과 및 교육대학에서 성교육을 전공한 대상이 담당토록 하며, 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외국의 경우처럼 보건교육을 전공한 대상이 담당토록 함이 바람직 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경우 교육심리, 행동과학 및 사회교육 전공자에 성교육의 실시로 충원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성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성병의 예방 및 피임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임신의 예방, 성병의 예방 및 피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개발 및 연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 죄의식 및 이중기준을 감소시키는 교육과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성적 행동의 절제 및 사랑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정의적인 영역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4. 성교육 교재 개발

건강행태 이론을 근거로 성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고, 성교육을 위한 내용개발은 전문가 중심의 지식을 토대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경험하는 위험을 사례별로 다루는 사례중심의 학습활동 편성을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성교육 교재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증받도록 하며 인증된 교재들에 대해서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인증된 교재들을 중심으로 성교육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는 성교육 정보센터의 설립 및 활용도 적극적으로 권장된다고 하겠다.

5. 임신으로 인한 자퇴자의 대책

- 1) 일반학교와는 다른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안학교체제의 교육을 받게하며 재임신방지를 위한 피임위주의 성교육을 받게한다.
- 2) 미혼모시설에서의 기술교육은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제공해야한다.

IV. 요약 및 결론

미혼모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시기에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피상적인 학교 성교육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임신과정과 함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복합적이고 상반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들은 출산 이후의 가족과 재통합 시의 두려움, 사회와 학교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부모되기 프로그램,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사업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순결교육 위주의 피상적인 성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정확한 피임방법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성경험을 하는 연령이 날로 저연령화를 보이는 실정에서 무조건적인 순결교육을 강요하는 것을 지양하고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조심스럽게 요구된다. 청소년의 임신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대한 올바른 성행동에 관한 가치관 교육과 실질적인 콘돔 등을 사용한 피임방법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수, 이정윤, 이상혁, 오은희, 이철우, 최범, 신용덕, 김동진, 미혼모의 산부인과적 고찰, 대한산부회지 45-8, 2002년 8월.
- 김만지,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9-8, 2001년.
- 김미중, 강희선, 기혼여성의 지속적 피임행위와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및 성적 자율성, 대한간호학회지 33-6, 2003년 10월.
- 김미중,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설명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2, 2001년 6월.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성문화연구소,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모형 개발, 2000년.
- 박상화 · 이봉경 · 한정호, 우리나라 20-39세 유배우 부인의 콘돔 사용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27-1, 2001년 3월.
- 박상화, 피임법으로서 콘돔의 신뢰도,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26-2 2000년 6월.
- 박상화 · 한정호, 남자 대학생의 콘돔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1, 2000년.
- 박상화 · 한정호, 응급피임약의 효율성과 안전성,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28-2, 2002년 6월.
- 박영주 · 구병삼 · 홍명호 · 김탁 · 신재철 · 이찬 · 문준 · 오민정,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 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지, 28-3, 1998년.

- 박영희, 10대 임신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8호, 20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 손애리 · 조병희, 전국도시주민들의 콘돔사용실태 및 콘돔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통
계학회지 28-2, 2003년
- 여성가족부 가족복지과, 미혼모현황 및 욕구조사, 2005
- 윤미현 · 이재연,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1-4, 2000
- 이임순 · 이윤희 · 정집광 · 이석민 · 이해혁 · 이정재, 한국여성 1,131명의 피임실천 및 실태에 대
한 조사, 대한산부회지 45-6, 2002년 6월
- 이해남 · 변용진, 한국 충주 지역 여성들의 피임실천 및 실태, 대한산부회지 46-4, 2003년 4월
- 임현자 · 조유향, 일 지역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지 16-2, 2002년 9월
- 천혜정 · 배선희 · 송말희 · 송현애 · 전길양,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 성과 임신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2002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2001
- 한영란 · 양순옥,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1997년 9월
- 한정호 · 박상화, 김응익, 콘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보건소 보건요원과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24-2, 1998년 10월
- Anderson et al., Adolescent Dual use of condoms and hormonal contraception : Trends and
Correlates 1991-2001,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2003. 9.
- Cheng et al., Repeat induced abortions and contraceptive practices among unmarried young
women seeking an abor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87, 2004
- Smith et al., An Evaluation of a School-based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Aimed at Young
Males : A 1 Year Follow-up,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2, 2004